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고순제 전도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한1서 1:5-10 성장을 위한 성도의 자아상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가 305장 /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통일찬송 405장)
현신과 나눔	봉 헌 / 구은강 집사, 유덕하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살과 세상으로	* 마라나타 주 예수여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박진성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레위기 26:14-33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뜻대로 살기로 했네 / 주님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와도 수많은 유혹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등지고 십자가보네 / 세상등지고 십자가보네
세상등지고 십자가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와도 수많은 유혹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해야겠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이고
항상 기도로 삶이 공유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
물론, 수시로 이 결단이 무너진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아야겠다.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아, 맞다!"고 생각될 때 찬양하자.
"주님 뜻대로 살고 뒤 돌아 서지 않겠네."

한 주간의 기도

"감사와 기쁨의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한 해 동안 섬김의 교회를 같이 섬긴 형제,
자매의 수고와 헌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맘과 사랑이 하나 하나 그대로 비치는
작은 신앙 공동체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태하지 않고 묵묵히 내 신앙의
거룩한 집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함과 능력을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그러므로 너희 당대함을 버리지 말라.
은유공포의 영이 내게 임하니라. 너희에게 은유공포의 영이 내게 임하니라.”
사도행전 10:48-49

교회와 사역

유혹의 시대에 결단하라

유혹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결단하라'는 것이다. 최근에 도전이 되는 경구 하나를 보았다. "포기한 자보다 더 비열한 자는 시작도 하지 않는 자이다." 또 최근 화제가 되었던 책 중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내 눈길이 머무는 문장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다 갖추고 성공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데 들여다보니 자기만의 방향이 없고 가치 기준이 없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하겠는가.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위에 두게 하시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선포 하였기에 우상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맛닥뜨렸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도 여호수아의 선포를 함께 선포해보면 좋겠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온다. 영화배우 이정재가 맡았던 염석진은 독립운동을 해왔으나 변절하고 자기 동료들을 배신했다. 앞에서는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활동 하면서 뒤로는 일본에 독립운동가의 작전과 명단을 넘기는 일본의 밀정 노릇을 한 것이다. 결국, 죽음을 맞게 된 그에게 여주인공인 전지현이 맡았던 독립운동가 안옥윤이 묻는다. "왜 동료들을 팔았나?" 한때는 함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이였으니, 그를 죽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원망하듯 질문한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염석진의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물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것처럼, 너무나 악한 바벨론 같은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마라나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변절하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마는 비극을 맞게 된다. 언젠가 반드시 맞게 되는 종말인데, 우리의 마지막 날 이것이 우리의 절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알았으면 그랬겠나?"

이런 부끄러운 고백으로 끝내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다니엘처럼 도전하고, 뜻을 정하여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꿈꿔야 한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 소망이 우리를 변절시키지 않는 능력이 될 줄 믿는다.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선포하고 도전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리워진 우리 인생의 담을 경중 뛰어넘는 작은 도전과 작은 성취감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

- 이찬수, 세상에 믿는 자로 산다는 것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민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월은 "감사의 달"은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이웃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1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Christ UMC의 "Hanging of Green" 주일에 자녀들이 참여했습니다.
3.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4.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추수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기도와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5.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간구하며 함께 전진합니다.
6.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직장과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7. Youth 사역과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 결산과 예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예산 사역팀(구민, 오정은, 최선윤/재정, 김훈태/행정, 유동숙/감사)이 오늘 저녁 6시에 모임을 가집니다.
9. 연말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 가족 및 이웃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10. 연말 연시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씁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금요 찬양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12월 사역 ▶ 12.22 성탄감사 주일 / 12.24 성탄축하의 밤 / 12.31 송구영신예배, 성찬예식 & Oikos 셀모임

▶예결산 사역 / 사역 리부과 재정비

♥성령 충만♥ 오준하(12/2) 김훈태(12/19) 박다현(12/23) 홍은성(12/26) 유덕하(12/28) 최선윤(12/30)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1/24	12/1	12/8	12/15
	최내권집사	고순제전도사	최선윤집사	구 민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1/29	12/6	12/13	12/20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11/24	12/1	12/8	12/15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11월		12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감사생활을 재점검하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려움과 환란과 그들의 모범적 믿음을 반추한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실패와 고난을 뛰어넘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비록 현실은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순간들이 많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자.

성장을 위한 성도의 자아상 / 요한1서 1:5-10

영적성장을 위한 바른 자아상을 다시 확립합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왜곡된 자아상이 어닌,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
건강한 정체성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확신, 감사와 기쁨을 누립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답게 또한 빛의 자녀답게 힘차게 천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장을 위한 성도의 자아상 / 요한1서 1:5-10

자아상.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어 신앙은 성장한다. 반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영성은 성장하기 어렵다. 잘못된 시작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자아상은 어떤 것일까?

우리 자신의 첫 번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다. 요한은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하고 성경은 악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왜곡하게 된다. 그런 왜곡된 자아상은 온갖 위선과 교만으로 덧칠이 된다.

두 번째 우리 모습은 죄인이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죄 값에 대해 더 이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겸손히 '감사드림'과 동시에 죄 용서의 확신을 갖고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세 번째 자아상은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이다.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우리는 어두움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시작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할 수가 없다. 때로 인생의 고통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걱정 거리로 수심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악 때문에 잠시 생긴 그늘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나가는 그늘로 인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낙망하면 안 된다. 대신 자신이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용서받은 죄인이자 빛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다. 자신의 이런 존재를 알 때 그리스도인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답게 감사와 기쁨으로, 빛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로 힘차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혼이 장로 될 것이 네가 범사에 착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December 1,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나눔의 달 선교주일 만남과 나눔의 주간

- 꿈이 있는 교회
- 섬김이 있는 교회
-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하나님께 말씀드려
늘 듣고 계시니까
1. 보람이

주일 자비성이
은 달인 것이
이유이유 예배인

이 온전
내가 배워
이런말이다